# 파리협약 전후 10년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ODA 변화: 2010년 ~ 2019년

김현아(서울시립대학교)

## 1. 서론

파리협약은 2020년에 만료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대체하여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로써 2016년 11월에 발효되었다. 파리협약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의 원칙을 명시하였다. CBDR의 원칙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과 그로 인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기후변화를 야기한 선진국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간의 기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후정의(Climate Justice)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 CBDR의 원칙과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을 근거로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선진국들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파리협약의 CBDR의 원칙과 기후정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관련 지원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2021년 적용되는 파리협약을 선진국들이 잘 준비해 왔는지 평가 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다.

## 2. 본론

### 1) 이론적 배경

#### (1) 파리협약과 CBDR의 원칙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었으며,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의 원칙이 처음 등장하였다. CBDR의 원칙은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에 모두 적용되었다. CBDR의 원칙은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으로 이해되었고,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에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등장하였다.

#### (2) 기후정의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전세계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서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위험성은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주요원인 탄소 배출은 산업화를 경험한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한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행위자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가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개발도상국들이 많다. 이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가 서로 다름으로 인해 두 그룹 사이의 기후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기후정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개발도상국들의 기술과 자본으로는 기후변화를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기후정의의 개념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에 기후변화 관련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기여도가 낮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대응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지원으로는 기후변화 완화보다는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 2)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관련 ODA 변화

#### (1) 기후변화관련 ODA 변화: 2010년 ~ 2014년

파리협약 이전 2010년 ~ 2014년 동안 DAC 전체 기후변화관련 ODA 평균은 22.454% 이다. DAC 전체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2012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ODA 비율 대한 전체 평균은 9.979%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평균을 넘는 국가는 총 9개국으로 일본,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스페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2010년부터 2014년동안 기후변화 ODA 지원을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꾸준히 지원한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 ODA 비율이 높은 국가는 꾸준히 큰 변화없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기후변화 ODA 비율이 적은 국가들의 기후변화 ODA의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

DAC 회원국 전체 기후변화 ODA 중에서 기후변화 완화가 61.65%로 기후변화 적응보다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 지고있다. 또한 30개의 회원국 중에 절반이 기후변화 완화에 더 집중해서 지원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ODA 비율이 높은 국가인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에서 모두 70% 이상을 기후변화 완화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